

Interview

〈열린 지성〉 초대석

이장무 신임총장을 만나다

이번 〈열린 지성〉 ‘초대석’에서는
지난 8월에 취임한 이장무 신임총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 우리학교의 새로운 총장으로서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A 무엇보다 우리 서울대학교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21세기 신문명을 주도하는 세계 정상급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으로 학문적 수월성을 인정받는 교육과 연구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학문 분야 간, 대학과 사회 간, 대학과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 대학이 진정한 지적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내 학문의 벽, 학과의 벽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학문의 벽, 학과의 벽, 단과 대학의 벽을 허물어서 지적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문 간의 벽뿐만 아니라 대학과 사회 간의 벽도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과 사회의 벽을 낮추어서 대학이 사회를 체험하고 사회가 우리 대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과 외국의 대학, 기업, 연구 교수들과의 벽도 낮춰서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본이 튼튼한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학문과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기본을 튼튼히 하고 그걸 토대로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보고가 돼서 세계적 학문의 수월성을 추구하고면서 활발한 국제 교류를 이루어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과 대학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Q 학생들 사이에 학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총장님께서서는 현행 학부제가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학부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A 현행 학부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사과정의 전공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학사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대학원에서 세부 전공을 이수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했던 거지요.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과 전공을 통합해서 적절한 학문범위의 학부를 만들어 교육하면 졸업생들이 학사과정에서 공통



기초가 되는 폭 넓은 분야의 과목들을 수강해서 기본을 단단히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에서도 직장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여러 학문을 통합해서 학부를 만들다 보면 학문 분야가 굉장히 산만해지고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단지 경제적 효율성이나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서 통폐합된 학부를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공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학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학문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되 기초교육, 기본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형태의 학부, 학과 제도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Q 취임 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학교의 국제화에 대한 구상을 밝히셨습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학교의 영어 강의나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우리 서울대학교의 국제화에도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이 이제 100여 개 대학으로 늘어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Interview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대학에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외국인 교수들을 많이 초빙해서 영어 및 외국어 강의를 늘려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여러 외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계 방학 중에는 많은 외국 석학 교수들을 초청해서 외국학생들과 우리학생들이 같이 석학교수 강의를 듣게 하는 국제하계학교를 열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들을 외국에 더 많이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발된 우리 대학 학생들을 외국 대학과

연구소, 기업에 보내 한 학기 또는 1년간 강의를 수강하거나 인턴활동을 하도록 지원해서 그것을 학점으로 연결시키는 학점 교환 교육, 인턴연수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아시아의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 학교에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리더가 되게 함으로써 서울대학교를 모교로 생각하고 한국을 가깝게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우리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기초교육을 위해 기초교육원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기초교육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기초교육원을 통해서 기존에 각 단과대학에 분산되어 있던 학사과정의 기초교육업무가 통합되어 전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기초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교육원이 설치되고 난 후에 우리 학교의 기초교육, 교양교육이 크게 활성화 되고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수의 학생들이 전임 교수와 학문적으로 교류하고 상담, 토론하는 신입생 세미나와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폭넓은 내용의 교양과목으로 동일한 주제 하에 여러 전문가가 돌아가며 강의하는 옴니버스 식 강좌 등 특수한 과목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기초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글쓰기 교과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공과대학, 약학대학, 생활과학대학에서는 글쓰기 교과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등 기초교육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 현재 해결해야 할 기초교육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무엇보다 기초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초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내 전체에 기초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직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기초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초소양을 높이는 교육, 전공공부에 도움이 되는 기초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수강 인원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강 인원이 60명 이상 되는 과목이 전체의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30명 이하의 수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도 기초교육원에서 많은 우수한 분들이 기초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기초교육원에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리더 양성을 위한 리더십센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대학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리더십센터 또는 리더십센터를 기초교육원에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더십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 그렇다면 향후 기초교육 및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문 간, 학과 간, 대학 간의 벽을 허물어서 학제 간 기초교육, 통합 기초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초교육 과목 개발도 중요하지만 체험과 능동적 학습이 강조되는 기초교육, 교양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배우는 학습이 강조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기초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자유전공 모집제도나 자기 맞춤형 교과과정제도 등도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외국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는 자기 맞춤형 교과과정제도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 필요한 타 학과의 과목들을 자유롭게 수강하여 매우 다각화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로봇을 연구한다면 전기공학,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의학이나 곤충학, 심리학 과목들을 골라서 수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게 전공 분야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총장님의 학부생활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A 제가 학부생이었을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통합 캠퍼스가 아닌 공릉동의 공대 캠퍼스에서 대학생활을 해서 지금의 여러 분처럼 다양한 기초교육을 받을 수 없었어요. 사실 종합대학의 장점이 인문, 사회, 예술 분야의 많은 좋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독 캠퍼스에서 이러한 기회를 누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대신 넓은 운동장이 많아서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었고 대학체육대회와 대학축제가 많이 열렸던 것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인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서울대학교는 민족의 대학, 겨레의 대학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동안 국민과 국가의 사랑과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졸업생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대인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다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사회 정의를 실천하면서 주변을 배려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리: 홍정민 / 사진: 최정민